

# 새정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인수위 기초분과 국정비전, 국정운영 원칙 확정 '도약'은 시대 소명, '함께 잘사는'은 국민적 요구

새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이다. 인수위는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계됐다.

최종학 기초분과위원에 따르면 국정비전은 윤석열 당선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린 5년후의 국가 모습과 두 사람의 연설문을 모아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기반으

로 고민했다고 한다. 또 청년층의 의견도 반영했다.

최 위원은 "비전이라는 게 말의 잔치로 끝나선 안된다"며 "어떤 비전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고했고 두분께서 이 버전을 꼭 달성하겠다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다"고 전했다.

최 위원은 브리핑 후 내주에 발표하게 될 국정 목표와 관련해 "6개 분야로 나눠서 국정 목표를 마련했다. 과거 정부는 5개 분야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정치, 경제, 복지, 외교안보, 지역균형발전에다 '과학기술 교육'분야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과 안 위원장께서 몇번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많이 말했다"며 "그런 뜻을 반영해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는 걸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어느정도 추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게 다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금액은 말 못하지만 공약 실현에 얼마나 들지는 계산했다"며 "경제 파이를 키워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기존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적자 재정 문제

가 커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하기로 는 매니저블(다룰 수 있는)한 수준에서 거의 완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공약과 예산 확정에 대해선 "돈 문제는 공약보다 훨씬 복잡해서 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과제에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 부족

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걸 실행하는건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할 사안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계획 중에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 인수위 "尹, 병사 월급 200만원 의지 커 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등이 협의 중"

### 월급 인상, 나머지 목돈 지급 '복합형' 방식 등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데 대해 "당선인이 지켜야겠다는,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외교안보분과, 기획조정분과, 경제1분과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수위는 현 병사 월급을 약간 인상하고, 나머지는 목돈으로 지급하는 '복합형' 방식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기자

## 이준석, 한국에너지공과대 왔다 "기술·정책 함께 챙겨달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찾아 "에너지 기술과 정책을 함께 보는 사람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논쟁하는 과학자들'에 참석, "최근 에너지 정책 가운데 대체에너지를 비롯, 여러가지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다"며

### 한국에너지공과대 토크콘서트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때 전문성을 가진 관료 집단이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공청회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소화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대체로 폭넓게 사안을 다루려 하는 가운데 학습을 많이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이따금 유사과학이나 사업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잘 듣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폭넓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 같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정책입안자를 꿈꾸는 학부생들에게 전문성을 갖추 것을 요구했다.

토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수준에 맞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 달라"며 "논쟁적인 사고를 지닌 채 기록에 남는 글을 소재로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주제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가지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때론 지적으로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며 "특히 과거 황우석 교수의 연구윤리를 둘러싸고 펼쳐졌던 과학계 학부생들의 토론이 오늘날 연구 윤리 개념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토론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진 현재, 소수가 리더십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깨닫고 이를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치의 판단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둔 호남의 민심 청취를 위해 함평군을 시작으로 나주시, 진도군 등을 순회한다. 토크 콘서트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오후에 진도군으로 향해 지역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듣고 당원 간담회를 한다.

기획재정부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